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5장 방편(方便)

지관을 수행하려면 '결정심' 이 분명해야

선정의 마음이 바로 지혜, 지극한 일념으로 정진을

二者精進 堅持禁戒 棄於五蓋 初夜後夜 專精不廢 譬如鑽火未熱 終不休息 是名精進 善道法 두 번째는 정진 수행하는 방편이다. 정(精)은 잡되게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진(進)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행인은 한결같은 전일한 마음으로 잡되지 않고 혼란하지도 않으며 쉬지 않는 상태에서 용맹하게 정진을 해야만 한다.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던 중요한 점은 부지런하게 수행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은 염불을 했다 다음날은 경전강의를 듣고 또 때로는 참선을 했다 어떤 때는 주력을 하는 등 '정'을 잡됨이 없이 수행하지 않고 마음이 들쭉날쭉 수시로 바뀐다면 종일 수행공부를 한다 해도 한 가지 일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찌 크게 가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허물을 추구해보면 잡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정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인이 불도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용맹하게 정진해야만 한다.

정진이란 무엇인가. 견고하게 금계를 지나 안으로는 탐 진 치 만 의 등 다섯 번뇌와, 밖으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 등 육신을 버리고 안과 밖이 동시에 청정해야만 몸과 마음을 정진하는 것이 된다.

초저녁, 새벽, 한밤중 쉬 사이 없이 정진하면서 성성적직하고 적적성성하게 지관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비유하면 나무를 잘라하여 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무를 잘라하는 일을 끝내 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용맹한 정진이라고 하며, 지관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도법이라고도 한다.

三者念 念世間爲欺誑可賤 念禪定爲尊貴 可貴 若得禪定 即能具足 發諸無漏智 一切神通 道力 成等正覺 廣度衆生 是爲可貴 故名爲念 세 번째 염(念)이란 분명하게 기억하는 마음인데, 올바르게 기억하여 마음속에 환하게 드

러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간의 오욕법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아 사람을 기만하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천박하고 중오스럽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만 한다. 또 출세간 선정지혜는 수승하고 요묘하여 존귀한 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선정을 일게 되면 즉시 무류의 지혜와 일체 신通力이 빠짐없이 발현하여 등정각을 성취하게 된다.

무루지는 무생지(無生智)이다. 무생으로서 일어남이 없다면 소멸함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무루지혜이다.

신통은 육신통(六神通)이며, 도(道)는 칠과도품(七科道品)이며, 역(力)은 여래만이 지니는 열 종류의 지혜의 힘[十力]이며, 등정각을 성취한다함은 무상불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각(正覺)에 대해 말해보자면 범부는 망상으로 지각하고, 외도는 사견으로 깨닫고, 이승은 공에 치우쳐 깨닫고, 보살은 단지 중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진실한 등정각이 아니다.

오직 여래만이 진실한 등정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래의 등정각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끝까지 다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우주법계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래의 등정각만이 일체 만법과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여래는 삼지(三智)가 원만하게 밝고 오안(五眼)이 환출하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부른다. 지극한 묘각을 깨달은 이후에는 생멸망상이 끊어진 무연자비(無緣慈悲)를 일으키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운행하여 육도의 세계에 형체를 나누고 일체 중생을 광대하게 제도하신다.

수행인은 이같은 수승하고 요묘한 법을 항상 올바르게 사유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염'이라고 말한다.

四者巧慧 籌量世間樂 禪定智慧樂 得失輕重

所以者何 世間之樂 樂少苦多 虛誑不實 是失是輕 禪定智慧之樂 無漏無爲 寂然閑曠 永離生死 與苦長別 是得是重 如是分別 故名巧慧

네 번째로는 뛰어난 지혜를 실천하는 방편이다. 무릇 수행자라면 반드시 훌륭한 지혜로 세간의 쾌락과 출세간의 선정과 지혜에서 얻어지는 쾌락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료하게 밝혀 결립이 없어야만 한다. 그레아만 생사에 염증을 내고 열반의 세계로 향상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사건과 정경이 분간이 되지 않아 기로에서 방황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뛰어난 지혜로 관찰해야만 한다.

세간의 즐거움은 유위법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무상이며 설사 즐거움을 얻었다 해도 그 즐거움 역시 끝내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그 때문에 세간에서는 즐거움을 적고 괴로움을 많은 것이다.

이처럼 법신과 혜명을 살상하는 법을 즐긴다면 이는 경솔하고 천박한 법이다.

출세간 선정지혜의 즐거움은 무루법이고 무위법이다. 무루는 생사에 누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위법은 유위법의 조작성이 없어 답답하고 고요하여 생사의 속박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이같은 법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법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지혜라고 말한다.

五者一心分明 明見世間可患可惡 善識定慧功德可尊可貴 爾時應當一心決定 修行止觀 如金剛 天魔外道不能沮壞 設使空無所獲 終不更易 是名一心 譬如人行 先須知道通寒之相 然後決定一心涉路而進 故說巧慧一心 經云 非智不禪 非禪不智 義在此也

이상에서 이미 세간의 유위법은 모두가 환란이고 악이라는 것을 뛰어난 지혜로 분명히 구

별했고 아울러 출세간 선정 지혜는 존귀한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때 즉시 지극한 일념으로 지관을 수행하는데, 이 일념은 결정적인 일념이지 선정에 들어간다는 일념이 아니다. 즉 전일한 마음으로 하나의 문으로 깊숙이 들어가 공부하는 마음인 것이다.

금강은 가장 견고하고 날카로운 일체 사물은 파괴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체 사물에 파괴를 당하지는 않는다.

지관을 닦는 마음도 마치 금강처럼 견고하고 날카로운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도에게도 파괴되지 않고 설사 전혀 연은 바가 없다 해도 끝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를 비유하면 참선하는 가운데서 매우 좋은 소식을 얻은 것과 같으며, 염불수행을 할 때 지극한 일념으로 수행하여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뒤바꾸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일심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도로가 막혔는지 통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도 같다. 생사의 길은 막혔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며, 열반의 길은 통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뒤에야 결정적인 일심으로 그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다.

일심이란 사람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마음이 가장 요긴하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을 뒤바꾸어 가는 길을 되돌려서는 안된다. 그러한 마음을 두고 뛰어난 지혜로서의 일심이라고 말했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지혜가 아니면 선정에 들지 못하고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와 관 수행이 두 모습이 아님을 뜻한다.

지관을 수행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결정심이 분명해야만 하는데 선정의 마음이 바로 지혜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5) 식은(識蘊) ①

심(心)·의(意)·식(識) 등 세 가지의 차별을 하나로 통합해서 '식은(識蘊)'이라고 합니다. 즉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작용을 하는 여덟 개의 분별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어떤 행위, 즉 선업이든 악업이든 단 한번이라도 일으키면 모든 중생들의 근본적인 제팔아뢰야식(第八阿賴耶識)은 일과성인 단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켰던 만큼의 잠재세력이 그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세력들은 제팔식 근본식 자체에 함장됐다가 외부의 인연조건을 만나게 되면 다시 현재의 활동, 즉 전심식(前七識)의 현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종자세력이 활동을 일으키게 되면 현재의 활동세력은 다시 그만큼의 잠재세력을 제팔식의

여덟 개의 식을 하나로 통합한 것 대상을 분별·인식·의식하는 작용

에 동시에 활달하여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그 세력을 종자로 간직하게 됩니다. 제팔식은 이같은 자체성질과 작용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들마다 제팔식으로서의 심을 근본지체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하나도 잊지 않고 현재까지 지닐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갖가지 현실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심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이 세심 현재의 지식으로 일어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바로 망각하여 과거의 경험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어서도 찰나찰나 소멸로 단발하여 전후의 연속유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활동력은 한 찰나에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심이야말로 나머지 모든 식의 근본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식(本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심은 우리의 생명활동을 누리는 일정기간 동안 마음과 몸을 서로 연대해서 단절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해주며, 밖으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국토까지도 변화하여 세계를 유지시키는 한량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력(業力)'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로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대학교 중경부 동부교구 중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 과정 1년 (서울, 경기 의식기준)

1. 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에불, 각청(불공), 시식
2. 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상단관공,시식
3. 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개 강 일 : 2008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5.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설법전
6.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7. 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8. 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대학교 중경부 동부교구 중무원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음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음식이거나 던뎨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